

“커틀랜드와 나부에서의 복수결혼”에서 발췌한 내용

복음 주제 관련 글(topics.ChurchofJesusChrist.org)

후기 성도는 일부일처제, 곧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에 관한 율법임을 믿는다. 성서 시대에 주님은 그의 백성 중 일부에게 한 남자와 두 명 이상의 여자와의 결혼인 복수결혼을 시행하라고 명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초기 회원 중 일부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이 계명을 받고 이에 순종했다.

조셉 스미스는 복수결혼을 시행하라는 계시를 받은 후, 복수의 여성을 아내로 맞이했으며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관습을 소개했다. 이 원리는 조셉 자신뿐 아니라 교회의 다른 회원들에게 회복의 여러 측면 중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에 속했다.

교회 내 복수결혼의 시작

조셉은 자신이 행동에 나서기를 머뭇거리자 . . . 한 천사가 1834년부터 1842년 사이에 세 차례 자신에게 나타나 복수결혼을 실행에 옮기라고 명했다는 사실을 동료에게 밝혔다. 천사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나타났을 때 손에 검을 들고 와서 조셉이 나아가 이 계명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으면 그를 파멸시키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 . .

조셉과 에머

복수결혼은 이와 관련있는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을 안겼다. 특히 조셉 스미스의 아내 에머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련이었다. 복수결혼에 대해 에머가 보인 반응을 기록한 내용은 거의 없다. 에머 자신이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에 그녀가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알아내기란 불가능하다. 조셉과 에머 스미스는 서로 깊이 사랑하고 존경했다. 조셉은 복수결혼을 한 후, 일지에 “흔들리지 않고, 굳세며, 한결같고, 변함없는, 다정한 에머”라는 표현을 써서 “사랑하는 에머”에 대한 느낌을 토로했다. 조셉이 죽자 에머는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 목걸이에 달린 작은 갑에 지니고 다녔다. . . .

시련과 영적 증거

. . . 헬렌 마르 김볼에 따르면, 조셉 스미스는 “이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을 시험해야 했던 일 중 가장 힘든 시련이었다”라고 언급했다 한다. . . .

그런 가슴 저미는 시험을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은 일반적으로 간절한 기도와 깊은 묵상을 한 연후에야 할 수 있었다. 브리검 영은 복수결혼에 관해 배운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 인생에서 죽기를 바란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기도했고 신앙을 행사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저는 납득이 되었습니다.” . . .

루시 워커는 조셉 스미스가 아내가 되어 달라고 했을 때 겪었던 마음의 혼란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내 영혼의 모든 감정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밤을 무릎 꿇고 기도하며 편안히 잠을 이루지 못한 후, 방안이 “밝은 햇빛 같은 거룩한 영향력으로 가득 차자”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고요하고 감미로운 안도감이 내 영혼을 채우고 최고의 행복감이 온몸을 감쌌다.”

결론

복수결혼처럼 논란의 소지가 많은 원리를 도입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말로 다 설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복수결혼의 원리가 참되다는 영적 증거를 얻자 조셉 스미스와 그 밖의 후기 성도들은 이 원리를 받아들였다. 나부에서 복수결혼을 도입하자 어려움이 따르기는 했으나 그 일은 실제로 하나님을 위하여 “자손을 일으켰다.” 오늘날 회원의 상당수는 복수결혼을 시행한 충실한 후기 성도들의 후손이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